데일리 리포트 · 장마감 기준

2026.11.05 주도주: 카카오·SK바이오팜, 美 블루웨이브 쇼크 속 바이오·플랫폼 반등+카카오 자사주 소각 승부수

코스피 5383.8 (-5.28%)

코스닥 678.41 (-5.11%)

📊 시장 브리핑

코스피 5,383.8 (-5.28%) RSI 36





개인	+2조 7,043억
외국인	-3조 8,391억
기관	+9,354억

코스닥 678.41 (-5.11%) RSI 32





개인	+2,009억
외국인	-1,037억
기관	-1,043억

오늘의 시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며 AI·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부각되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28%, 5.11% 급락하며 코스피는 5,400선이 붕괴되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3조 8,391억 원을 순매도하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 매도세가 출회된 반면, 카카오는 3분기 호실적과 자사주 소각 발표에 10% 급등하며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다. 다음 거래일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금리 및 환율 방향성, 외국인 매도세 지속 여부, 반도체 섹터의 추가 조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셀트리온 KOSPI

215,000원 (+7.50%) 거래대금 4,207억원

분기 최대 실적+비만 신약으로 기관 집중 매수



지난 11/04 발표된 분기 최대 실적과 4중 작용 비만 신약 공개 호재의 연속 반영으로,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급락 장세에서 기관 순매수가 집중되며 강세를 이어갔다. 미국 블루웨이브 이후 바이오 섹터가 반도체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향후 비만 신약 임상 진척 및 추가 실적 모멘텀이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재료 분석

B+ · 7.4/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8	6	8	8	7

11/04 최대 실적+비만 신약 호재의 연속 반영

관련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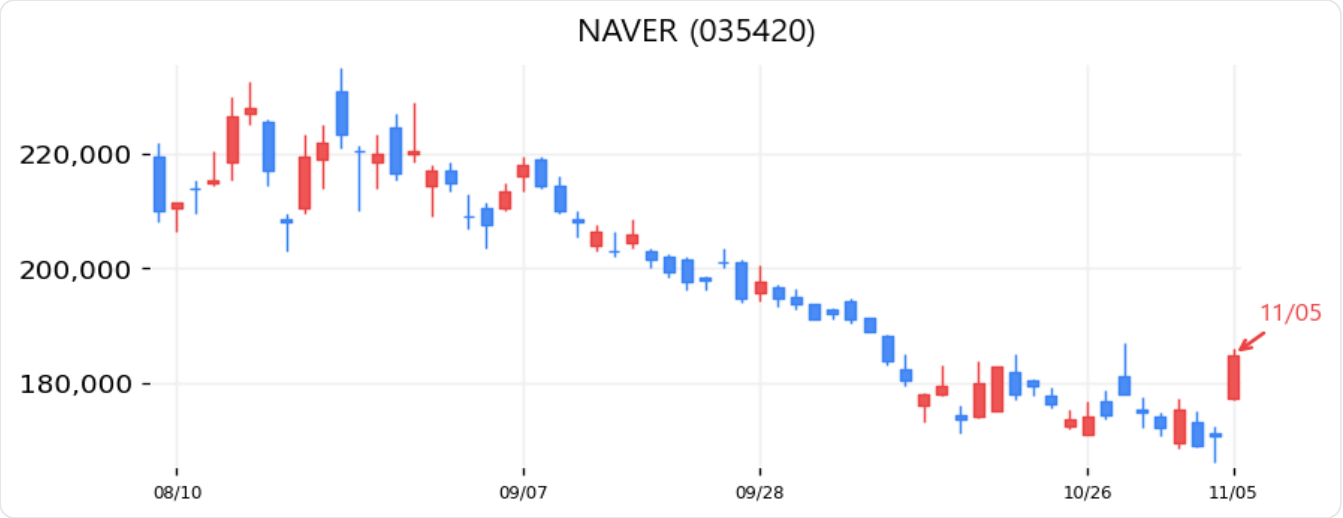
[특징주]셀트리온, 기관 순매수 앞세워 7.50% 올라...4중 작용 비만 신약...

셀트리온 21만4000원·7% 상승...최대 분기 실적에 매수세

#2 NAVER KOSPI

184,900원 (+8.26%) 거래대금 2,611억원

블루웨이브 수혜주로 AI·커머스 기대 재점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빅테크 AI 규제 강화 우려로 반도체주가 급락한 반면 국내 플랫폼·AI 대안주로 NAVER에 반사 수혜 매수세가 집중됐다. AI 챗봇 경쟁 가속화 속 HyperCLOVA X 기반 AI 커머스 성장 기대감과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수혜 가능성까지 복합 재료로 작용했다. 블루웨이브 국면이 지속되는 한 국내 플랫폼주의 반사 수혜 테마는 단기적으로 유효하다.

재료 분석

B · 6.0/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5	7	5	8	5

블루웨이브發 반도체 급락에 따른 플랫폼 반사 수혜 기대감

관련 뉴스

- NAVER 홀로 7%대 반등...18만4100원서 AI·커머스 기대 재점화
- 챗GPT·제미나이 확산에 AI 챗봇주 들썩... 카카오·NAVER '함박웃음'

#3 현대차 KOSPI

293,500원 (+3.53%) 거래대금 3,025억원

민주당 친환경차 정책 기대에 관세 완화 수혜 부각



미국 중간선거 블루웨이브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친환경차 보조금 및 전기차 정책 강화 기대감이 재점화되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도 동시에 부각되며 현대차가 코스피 급락 장세 속 역행 강세를 기록했다. 반도체주의 급락 여파 속 대형 비(非)반도체 수혜주로 자금이 순환된 측면도 작용했다. 향후 미 행정부·의회의 구체적 친환경차 정책 발표 및 관세 협상 진전이 추가 모멘텀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재료 분석

B · 5.6/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6	6	4	7	5

블루웨이브發 친환경차 정책 기대감+관세 완화 수혜 가능성

관련 뉴스

[특징주] 美관세 완화 기대?...현대차·기아, 3%·5%대 각각 상승(종합)

[특징주] 현대차, 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 3.53% 상승...친환경차 정책 기...

#4 카카오 KOSPI

32,200원 (+10.65%) 거래대금 1,507억원

자사주 소각+역대 최대 3분기 영업익 쌍끌이 급등



카카오가 3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동시에 1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인적분할 일정은 한 달 연기됐으나 주주환원 조기 실행이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됐고, AI 전략 집중 선언도 플랫폼 성장성 기대를 뒷받침했다. 이후 인적분할 구체 일정 확정과 AI 사업 성과가 주가의 추가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재료 분석

A · 7.8/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8	8	9	8	6

역대 최대 실적+1500억 자사주 소각 공시, 명확한 쌍끌이 호재

관련 뉴스

- 정신아 카카오 대표 "AI에 모든 자원 집중"... 1500억 자사주 소각에 담...
- [특징주] 카카오, 3분기 실적·자사주 소각 발표에 10% 급등 마감(종합)

#5 한미약품 KOSPI

465,000원 (+9.80%) 거래대금 1,257억원

미 블루웨이브로 의료보험 확대+비만치료제 기대 급등



10/29~30 에페 처방 개시 및 기술수출 호재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재등장했으며, 이번엔 미국 민주당 블루웨이브로 의료보험(ACA) 확대 정책 기대감이 새로운 촉매로 추가됐다. 비만치료제 관련주 전반의 동반 강세와 함께 '바이오 유럽 2026' 콘퍼런스 기대감도 보조 재료로 작용했다. 미국 의회에서의 실질적 의료보험 정책 추진 여부와 에페 처방 확대 속도가 향후 주가 지속성의 관건이다.

재료 분석

B · 6.2/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6	7	4	8	6

기존 비만약 호재에 블루웨이브 의료보험 확대 기대 신규 추가

관련 뉴스

- 한미약품 11%·지투지바이오 10% 급등...비만치료제주 무슨 호재 있나
- [특징주]한미약품, 美 중간선거 뒤 의료보험 확대 기대에 11.81% 껑충

#6 SK바이오팜 KOSPI

90,600원 (+12.27%) 거래대금 793억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로 어닝 서프라이즈 급등



SK바이오팜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시장 판매 성장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스피 전반이 반도체 급락으로 패닉 상태인 가운데 K-제약바이오의 이례적 선방 흐름 속에서 실적 모멘텀이 가장 뚜렷한 종목으로 부각됐다. 향후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진척과 미국 내 세노바메이트 처방 성장 지속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다.

재료 분석

A · 8.2/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9	8	9	8	7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공식 발표, 실적 기반의 명확한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 뉴스

- [특징주] SK바이오팜, '어닝 서프라이즈'와 차세대 신약 모멘텀에 9만 원...
- SK바이오팜 주가 장중 13%대 급등, 3분기 '사상 최대' 규모 실적 발표

#7 KB금융 KOSPI

157,000원 (+3.63%) 거래대금 1,558억원

ELS 과징금 확정+주주환원 기대로 은행주 반등 주도



금융당국이 홍콩 ELS 관련 과징금을 3712억원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에 따른 충당부채 환입 효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며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 및 주주환원 강화 기대도 매수 심리를 뒷받침했다. 향후 4분기 실적에서의 ELS 충당금 환입 규모 확인과 추가 자사주 매입 여부가 은행주 모멘텀의 지속성을 결정할 변수다.

재료 분석

B+ · 7.0/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7	7	8	7	6

ELS 과징금 확정으로 불확실성 해소+충당금 환입 실적 개선 기대

관련 뉴스

- 홍콩 ELS 과징금 '뚝'...은행권 환입 '쑥' 함박웃음
- 과징금 부담 덜어낸 은행권...ELS 충당부채 환입에 실적 개선 기대

#8 한진칼 KOSPI

190,400원 (+3.31%) 거래대금 1,890억원

호반 최대주주 등극으로 경영권 분쟁 프리미엄 지속



11/03 상한가에 이어 11/04에도 강세를 이어온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사흘째 연속 반영되는 흐름으로, 호반그룹이 조원태 측을 0.11%포인트 차로 역전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영권 프리미엄 기대에 우선주까지 급등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고조됐으나, 초기 상한가 대비 모멘텀이 점차 소화되는 국면이다. 향후 양측의 추가 지분 매집 행보와 이사회 구성 변화 여부가 주가 방향성의 핵심 변수다.

재료 분석

B+ · 7.0/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7	6	8	7	7

호반 최대주주 역전 공식화, 11/03 호재의 연속 반영 3일째

관련 뉴스

- 한진칼 최대주주 바뀌었다...호반·조원태 지분 경쟁 새 국면
- 불붙은 한진칼 주가...경영권 분쟁 프리미엄에 우선주 20% 급등

#9 기아 KOSPI

100,800원 (+5.22%) 거래대금 1,529억원

블루웨이브發 친환경차 정책 기대+10월 판매 증가 겹호재



미국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확정으로 전기차 보조금 및 친환경차 정책 강화 기대감이 현대차와 함께 기아에도 직접적 수혜로 작용하며, 반도체 급락 장세 속 대표 비반도체 수혜주로 자금이 집중됐다. 10월 글로벌 판매 증가 실적이 추가 호재로 작용하며 10만원선 돌파를 시도하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구체적 친환경차 입법 추진 경과와 전기차 판매 모멘텀의 분기별 확인이 향후 주가의 핵심 체크 포인트다.

재료 분석

B · 5.6/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6	6	4	7	5

블루웨이브 친환경차 기대+10월 판매 증가, 기대감 중심의 복합 재료

관련 뉴스

- [특징주] 美관세 완화 기대?...현대차·기아, 3%·5%대 각각 상승(종합)
- 기아 9만9900원·4.28% 상승...10월 판매 증가에 10만원선 공방

#10 우리금융지주 KOSPI

31,950원 (+5.27%) 거래대금 947억원

ELS 과징금 확정+주주환원 기대에 은행주 동반 강세



10/29 주주환원율 50% 기대 부각에 이어 이번엔 홍콩 ELS 과징금 3712억원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추가 호재로 작용했다. iM증권이 목표주가 4만2000원을 유지하며 배당 중심 투자 매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은행주 전반의 주주환원 강화 테마 속 동반 수혜를 누렸다. 향후 4분기 실적에서의 ELS 환입 반영 규모와 배당 확대 발표 여부가 추가 상승의 관건이다.

재료 분석

B · 6.4/10

임팩트	신규성	확실성	테마일치	연속성
6	6	7	7	6

ELS 과징금 확정 불확실성 해소로 10/29 주주환원 호재 연속 반영

관련 뉴스

- [특징주] 은행주 동반 강세...우리금융지주 5.9% 급등
- [특징주] KB금융 4%대 강세...은행株 주주환원 기대에 일제히 상승

작성: 신바람이박사 · AI 분석 보조 · 데이터 출처: KRX, 네이버 금융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6 오늘의 주도주 | 텔레그램 | 유튜브